

애정관계에서의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MALPS)’의 개발

주 현 덕[†]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의미론적 차별법을 이용하여 애정관계에서 연인으로서의 자신과 파트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쉽게 파악하고, 실시 대상 간의 비교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편리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말 쌍으로 된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성격 및 정서 용어 연구들과 사랑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애정 척도들로부터 형용사를 수집하였다. 준비과정에서 연구자들과 협조자들이 수집된 형용사를 일차적으로 설문이 가능한 수로 줄였으며, 예비 연구에서는 비성격적 요인과 연애 관련 개념들을 추가하고 조절하여 만든 140쌍의 단어에 대해 304명의 피험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64개의 형용사를 선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발된 형용사를 64개의 반대말 쌍으로 만들어서 376명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6개 요인을 찾아냈다. 각각 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 및 개방성으로 명명한 요인의 가중치 상위의 4개 항목들과 성적만족의 ‘+1요인’을 더하여 ‘애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 MALPS’를 구성하였다. 각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α)는 .64에서 .80이었으며, 전체 MALPS와 각 요인 척도의 상관(r)은 .48에서 .77이었고, 하위 척도들간의 상관(r)은 .06에서 .48이었다. 124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67에서 .81을 보여 정의적 척도로서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척도의 효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담심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척도가 실용적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한다.

주요어 : MALPS, 애정관계 측정, 애정척도, 연애 대상, 애정태도, 의미론적 차별법 (의미분석)

[†] 교신저자 : 주현덕,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E-mail : iamptier@empal.com

연애태도와 연인평가 척도의 필요성

짝을 선택하는 것(mate selection)은 아마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옳은(lawful) 결정을 내리기보다, 놀라울 정도로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한다(Lykken & Tellegen, 1993).”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 사람들이 연애 상대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그 중요성에 비해 우연적인 요소가 아주 많이 작용 한다(김중술, 1994; De Angelis, 1992; Feingold, 1992; 1990; Forward & Torres, 1987; Norwood, 1996).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경험이며, 어쩌면 오해와 착각의 결과물일 수 있다. 연애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상대의 관점과 생각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하기 전에 ‘자신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상대방이 공유할 것으로 기대한다(김중술, 1994; Byrne & Murnen, 1988; De Angelis, 1992; Forward & Torres, 1987; Gilbert, Jones & Pelham, 1987; Norwood, 1996). 또한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를 수 있음에도(Sternberg, 1999), 그 차이가 서로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상대에게 자신이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하지 않음에도(Townsend, 1998), 자신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물론 상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Baldwin, Carrel & Lopez, 1990; Byrne & Murnen, 1988; Pronin, Kruger, Savitsky & Ross, 2001).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려는 대신에, ‘편협한 시각, 선택적 추상, 자의적 추론, 과잉 일반화, 양극적 사고, 과대화, 편파적 설

명, 부정적 명명, 개인화, 마음 읽기, 선택적 추론 등의 마음의 책략들’의(Beck, 1988) 영향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랑을 판단하는 데에서 도움을 주려는 시도이다. 연인들이 애인과 연애관계에 대해 혈액형이나 별자리 등에 근거한 점(占)이나 궁합에 의존하는 대신에, 심리학적 근거가 있는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연애상대를 파악해주는 척도의 제공은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사람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사랑에 대한 이전 연구

사랑의 근사치를 찾아보려는 연구는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사랑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부각된 것은 어릴 적의 애착 유형을 근거로 향후 그 사람의 연애관계를 예측하려는 소위 애착-사랑 연구들이었다(홍대식, 1996; Feenl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1990; Kirkpatrick & Davis, 1994; Mikulincer & Nachshon, 1991; Schachner & Shaver, 2004). 그러나 이 애착-사랑 연구는 유아기의 애착 유형이 단순하기 때문에 애착 유형만 가지고서는 성인의 연애관계에 담긴 포괄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론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애착-사랑 이론의 인과적인 예측은 실제로 그 인과관계가 유사하게라도 입증된 바가 없으며(Tzeng, 1992), 이론적으로도 유아기 애착이 성인기 애정관계를 결정한다는 가설 자체가 비약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Harris, 1999).

이외에도 연애와 사랑의 유형을 측정하려는 시도들은 계속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척도

인 Hendrick과 Hendrick(1986)의 “Love Attitude Scale(사랑 태도 척도)”은 Lee(1973)의 사랑의 유형론을 척도화한 것으로서 사랑 유형간의 독립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 유형끼리 어떻게 어울리는가(matching)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어떤 유형들의 조합이, 왜 더 나은 조화를 이루고 더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각 경우마다 주관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Rubin(1970)의 “Love Scale and Like Scale(사랑 척도와 호감 척도)”은 연애 상대에 대해 사랑하고 좋아하는 정도를 말해주지만, 연애 상대방에 대한 이해보다는 관계 자체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사랑유형 구분에 있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척도 중의 하나인 Sternberg(Sternberg & Barnes, 1988; Tzeng, 1992)의 “사랑의 삼각형(Love Triangle Scale)”은 연애상대와 그 관계를 친밀감, 열정과 관계충실도라는 세 가지 요소로 평가하여, 사랑의 주요 성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그러나 능력이나 환경맥락과 같은 자원요소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Love/Hate Checklist(사랑/미움 척도)”는(Parish, 1988) 대상에 대한 태도의 방향(긍정적/부정적)만을 다룰 뿐, 그 태도의 수준이나 양은 다루지 않는다. “Global Measure of Participants' Inputs, Outputs, Equity and Inequity(투입 산출 형평 및 불형평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는(Hatfield, Walster, & Berscheid, 1978) 관계에 대한 투자의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제한적인 척도이며, “Miller Social Intimacy Scale(Miller 사회적 친밀감 척도)”도(Miller, 1982) 친밀감의 한 가지 요인만을 측정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Relationship Rating Form(관계평가 척도)”은 (Davis & Latty-Mann, 1987) 68개 문항의 종합적인 내용의 척도로서 나와 파트너의 태도(혹은 예상되는 태도)가 합

쳐서 검사된다. 반면에 “ENRICH(Olson, Fouries, & Druckman, 1985)”는 125항목으로 구성된 매우 포괄적인 척도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정관계에서 연애상대로서 자신과 애인에 대한 평가의 방향과 정의적 강도를 알려줄 수 있는 간결하며, 그 사용과 해석이 쉬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나에 대한 평가, 애인에 대한 평가, 내 애인의 나에 대한 평가, 내 애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 바람직한 대상에 대한 평가 등)에 따른 결과들의 비교를 통해서 관계 유지에서 자기와 상대의 비교를 중시하는 형평이론과, 바람직한 대상에 대한 비교과 현재 애인과의 비교를 중시하는 상호의존이론의 설명을 보다 용이하게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척도개발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특성과 요인들에 있어서, 연애상대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고, 연애상대와 자신이 어떤 면에서 같고 또 차이가 나는가를 측정하여 보여주는 척도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Osgood, Suci와 Tannenbaum(1958)의 의미론적 차별법(의미분척(semantic differentials))¹⁾을 기초로 상담자의 자질 척도를 개발한 Salvatore J. Pappalardo의 연구를 모형으로 삼았다 (Gable & Wolf, 1998).

1) 의미론적 차별법(Semantic Differentials)에 대해 여러 가지 명칭이 제기 되었지만, 심리측정 전문 교수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미론적 차별법과 의미분척을 함께 사용하였음.

Osgood 등(1958)의 의미분척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서로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과, 의미에서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의 차이를 활용하는 기법이다. 서로 대비되는 단어쌍들의 척도에서 보다 관련이 있는 것에 표시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대상에 대한 채점자의 태도의 방향과 강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Osgood et al., 1958). “당신은 어떤 종류의 연인이냐”라는 개방형의 질문보다, 여러 쌍의 단어들에서 자신과 관련된 단어를 고르게 하는 것이 훨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Tzeng, 1992).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에게 물어볼 경우, ‘부드럽다’나 ‘맛있다’ 등의 제한된 단어의 반응에만 한정되지만, 같은 사람들이 의미론적 차별법에 의한 단어 쌍들을 제공받을 경우, 신속하게 다양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Osgood et al, 1958). 의미론적 차별법은 대상에 대한 평가를 문장에 대한 반응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단어 쌍들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태도의 방향과 강도를 동시에 파악하면서도, 문장으로 된 문항이 가질 수 있는 편파성을 줄일 수 있다는(김아영, 2004; Rust & Golombok, 1999) 장점이 있다.

예비 연구

성격 및 태도 형용사 목록 작성

1단계

연인관계 또는 연인으로서의 자신과 상대방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풀을 구성하기 위해 이전에 연구된 한덕웅(1992)의 한국어 성

격특성 용어 786개와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한국어 정서 용어 834개를 기본으로 삼았다. 여기에 안신호, 이승혜, 권신호(1993; 1994)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96개의 한국어 정서 단어와,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을 위해 사용한 64개 개념들(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2001; 정남운, 2000)을 추가하였다. 총 1780개의 형용사가 너무 많기에 연구자와 Y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3학기 이상 재학생 5명, 총 6명이 2차에 걸쳐서, 일반 피험자들에게 설문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어수를 줄였다. 먼저 ① 애정관계나 애인을 나타내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② 자주 사용되는가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개별 평가를 한 후, 6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한 450개의 형용사 단어들을 선별했다. 5일 경과 후 선별된 단어들 중, 서로 분명하게 반대가 되는 단어들, 즉 남성적/여성적, 만족/불만족스럽다와 같은 단어들을 서로 하나의 쌍으로 묶고, 유사한 단어들은 빈도나 표현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대표 단어로 축약하여 총 200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2단계

이 단어들을 다시 총 67명(Y대학교와 E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전공자들 24명, 경기도 부천시영 영어 학원 수강생과 강사 43명, 평균 27.5세, 여성 47명, 남성 20명)에게 연인관계에서의 중요성과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5점 척도에 평가하게 하였다. 중요성과 사용빈도의 기준 중 하나라도 평균이 3점 이상인 총 106개의 성격과 정서 관련 형용사가 선별되었다.

연애 관련 형용사의 추가

사랑은 기본적으로 욕망, 자존감, 애정 호

기심(desire, pride, affection, curiosity)을 수반하는 정서적 경험이다(Tzeng, 1992). 하지만 연구자가 단어 선택의 근원으로 삼은 이전 연구들이(안신호 등, 1993; 1994; 정남운 2000; 2001; 한덕웅, 1992; 한덕웅, 강혜자, 2000) 사용한 개념들은 거의 대인관계와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었으므로 그 이외의 요인들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인관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 성격요인 이외의 다른 여러 요인들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애정관계, 남녀관계와 짝 구하기(mating)에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해서 여러 연구들의 주제가 되었던 요인들을 형용사 풀(pool)에 포함하고자 하였다(예: Buss, 1994; Fisher, 1994; 1999; 2004; Pines, 1998; 1999). 그리고 이제까지 많이 사용되어온 주요 애정관계에 대한 측정 척도들이 중요시 하는 개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Tzeng (1992)의 '*Measurement of Love and Intimate Relations: Theories, Scales, and Applications for Lov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Dissolution*'이 담고 있는 여러 척도들의 주요 개념이 되는 형용사들을 검토하여, 추가하였다.

우선 조작적 정의 수준에서 연애개념들과 관련된 단어들 중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첫 인상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모와(Burns & Farina, 1987; Campbell, Kleim, & Olson, 1986; Dion & Dion, 1987; Feingold, 1992, 1990, 1988; Mathes & Kahn, 1975; Strokes & Levin, 1986; Townsend, 1998; Umberson & Hughes, 1987) 관련된 요인을 추가하였다. 단기적인 관계에서 여성들도 남성의 신체적 매력을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에서(Buss, 1994; Buss & Barnes, 1986; Greitemeyer, 2005; Pines, 1998; 1999), '성적 매

력이 있다'를(홍대식, 1996)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 '섹시하다'로 바꾸어 추가했다.

성적으로 보다 개방된 시대이고, 첫 만남에서 성적 접근으로 진전되는 기간이 이전보다 훨씬 앞당겨졌다(유외숙, 박경, 2004; Snell & Pappini, 1997). 이런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성적 영역에 대한 감정과 결정이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성적 즐거움', '성적으로 적극적이다'와 '육체적 만족'을 포함하였다(Diamond, 1997).

남녀는 서로 다른 방식에서만 아니라, 다른 욕구를 연애관계에서 충족하고자 하기도 한다(Dion & Dion, 1973; Impett & Peplau, 2003; Sedikides et al., 1994). 여성은 남성보다 더 로맨틱한 끌림(romantic attraction)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덜 이상주의적이며, 덜 냉소적이고 동시에 보다 실용적이라는(Dion & Dion, 1973) 성차를 반영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었다.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방과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 질투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Downey & Feldman, 1996) 점에서 '질투하다'와 '비판적이다'를 포함하고, 민감성의 긍정적인 면인 '자상하다'를 더했다. Lee(1988)의 사랑의 유형의 Eros, Ludus, Storge, Pragma, Mania, Agape의 각각에 해당하는 '열정적이다, 밀고 당기다, 친근하다, 합리적이다, 몰입적이다, 모든 것을 다 준다'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하는 정도가 애정관계의 발전과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Beck, 1988) '잘 표현하다'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사람들의 암묵적인 자기중심성(implicit egotism)은(Jones et al., 2004) 연인 관계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며, 자신과의 유사성이 애인을 선택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Byrne

et al., 1986; Jones et al., 2004; Lykken & Tellegen, 1993; Tzeng, 1992) 예상에서 '상대방과 비슷하다'와 '상대방과 수준이 같다'(David & Todd, 1985; Pines, 1999)가 추가되었다. '머리가 좋은, 신체적으로 매력 있는, 종교가 같은, 결혼하고 싶은, 부모로서 자격을 갖춘 과 같은 개념이 보다 중요하다는 Lykken과 Tellegen (1993)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서 '똑똑하다'를 추가하고, '종교가 같다'(Tzeng, 1992) 포함시켰다. 서로 익숙해지는 것은 연애관계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Monahan, Murphy & Zajonc, 2000) 고려되어 '익숙하다'가 추가되었다 또한 성격적인 요인과 행동적인 요인 이외에 인구통계적 요인을 추가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요즘 결혼을 할 때 우선적인 결정 요인으로 남녀가 생각하는 선택조건인 '성격, 사랑, 외모, 집안, 장래가능성, 학벌, 종교'의 개념을 반영하는 형용사로서 '성격 좋다, 집안 좋다, 장래가능성, 학벌 좋다'가 포함되었다(함인희, 2001). 직접적으로 나이와 학력 소득은 심리적 성숙성, 직업적 수행, 재정적 안정과 다른 개인적 자원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Kurdek, 1993) '능력 있다'와 '상대에게 힘(집)이 되다'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Kurpatrick과 Davis(1993)가 사랑에서의 성장력, 친밀감, 열정, 보살핌, 전반적인 만족, 갈등-양가성, 헌신(commitment)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과 요인들을 검토 연구한 것을 반영하여 '안정적이다-불안하다'를 추가하였다. 다른 단어들은 이미 형용사 풀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문항 평가

3단계

이렇게 산출된 34개의 단어를 기존의 106개

의 형용사에 더하여 총 140문항의 설문지를 제작했다.

4단계

설문은 '애인이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계속 만나기로 하거나, 관계의 단절 또는 관계가 나빠지게 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보다 더 중요한 요인과 덜 중요한 요인이 있는 전제를 응답자들에게 설명하고, 제시된 140개의 단어에 대해서 '해당 단어가 남녀관계의 발전과 쇠퇴, 유지와 단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7점 척도로 표시하도록(아니다-1점에서 그렇다-7점) 요구하였다. 실제 설문은 Y대학교 교양 심리학 수강 학부생 268명과 Y대학과 E대학 대학원생 19명, 부천 지역 영어 학원 수강생 17명의 총 306명(남 136명, 여성 168명, 2명은 성별 기재 안함, 연령은 18세에서 40세, 평균 22.7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신뢰성이 의심되는 2명은 탈락시켰다. 대학생들을 주요 피험자들로 사용하게 될 경우, 결과에서 특정 집단만의 성향을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대학생 집단은 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의미론적 차별법 공간의 선명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Osgood et al, 1958). 설문 결과 문항수가 많았으므로 내적 신뢰도는 $\alpha = .959$ 로 높게 나타났다.

최종문항 산출

5단계

설문결과, 문항 평정치의 평균은 7점 만점에 4.85로 나타났다. Lee(1973)의 사랑의 유형 6가지에 해당되는 열정적(Eros), 밀고 당기다(Ludus), 몰입하다(Mania), 모두 다주다(Agape), 계산적(Pragma) 등은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고, 친근하다(Stroge)만이 평균 이상이였다. 단어의 번역상의 문제로 인해 의미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기존의 사랑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정열적이다, 불안-안정적이다, 열중하다, 똑똑하다, 로맨틱하다, 독립-의존적이다, 온순-과격하다, 몰입집착하다(Mania), 성적 즐거움과 성적으로 적극적이다' 등은 평점에 상관없이 남겨두기로 하였고, 나머지 평균 이하의 단어들을 제외하였다. 평균 이상의 단어들 중에서도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s)에 의한 직각 회전 방법(varimax rotation)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같은 요인군으로 묶인 단어들 중에서 서로 너무 유사하다고 판단된 단어들의 대표 단어를 선발하였다. 또 위계적 군집(Hierarchical cluster) 분석을 통해 척도 거리가 3이하인 단어들을 하나로 묶었고(예: 성적이다-성적 즐거움), 4에서 6 범위의 단어들 중에서는 어휘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 단어들을 묶었다(예: 온순하다-조심스럽다, 뜨겁다-정열적이다). 최종적으로 64개의 단어를 선발하여 본 연구를 위한 단어 목록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

문항구성

예비연구를 통해 선발된 단어들을 반대말 쌍으로 만들기 위해 13명의 대학생(남자 5명과 여자 8명, 평균 21.3세)들에게 반대말을 쓰도록 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설정하였다. 반대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__하지 않다”의 부정형을 선택하였다. 64개의 반대말 쌍이 구성되었고, 응답의 편향을 피하기 위해

단어의 순서를 무선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제시하였다. 예비연구에서 만들어진 64쌍의 단어들에 대하여 ‘자신이 애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더 잘 나타내 주는 방향으로 9점 척도에 표시하게 하였다. 인구통계 자료와 개인적 변수들이 수집되었다. 단어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가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김아영, 2004; Rust & Golombok, 1999) 30%에 해당되는 단어는 반대방향으로 제시하고 역채점 하였다.

연구대상

Y대학교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320명, 경기도 부천시의 영어 학원 수강 대학생 5명 등 총 376명에게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225명(60%), 여성이 149명(40%)이었다(미개재 2명). 연령은 17세에서 31세까지(평균 21.1세)였고, 이들 중 38%가 연애관계에 있었고, 18%는 최근에 애인과 헤어진 상태였으며, 44%의 사람이 최근 6개월 동안 연애경험이 없었다.

결과

조사 결과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39$ 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 내용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서 연애 태도의 개념 구조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의미론적 차별법은 대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평가(evaluation), 자극의 느껴진 강도를 의미하는 세력(potency), 대상에 대한 인지된 에너지 수준을 의미하는 활동(activity)의 세 차원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공한다(Osgood et al., 1958). 하지만 의미론적 공간이 이 세 가지 차원만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며, 그 이외의 요인들의 차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의미론적 차별법의 요인분석 결

과는 대부분 제1요인인 ‘평가’로 묶이게 되므로, 나머지 요인들의 설명량은 매우 적게 된다 (Osgood et al., 1958; Tzeng, 1992). ‘어떤 개념이

판단되느냐’에 있어서, 요인들 간의 중요도와 관계는 판단의 준거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sgood et al., 1958; Tzeng, 1992; Gable & Wolf,

표 1. 연인으로서 나(내 애인) 척도(MALPS)의 요인별 설명

	alpha	단어 쌍	가중치	요인 설명
요인1	.802	자상하다-무뚝뚝하다	.775	다정함 (tenderness)
		다정하다-냉정하다	.761	
		로맨틱하다-뻘뻘하다	.720	
		성격 원만하다-성격 모나다	.594	
요인2	.775	상대와 비슷하다-상대와 다르다	.808	유사성 (similarity)
		수준이 맞다-수준이 맞지 않다	.784	
		동질적이다-이질적이다	.711	
		만족하다-불만족하다	.519	
요인3	.709	진지하다-진지하지 않다	.720	집중성 (commitment)
		현신적이다-현신적이지 않다	.702	
		열중하다-만 데 신경 쓴다	.670	
		성실하다-불성실하다	.532	
요인4	.638	너그럽다-꽁하다	.767	허용성 (permissiveness)
		이해심 많다-이해심 부족하다	.685	
		자유를 존중하다-소유지배적이다	.649	
		포용적이다-비판적이다	.502	
요인5	.687	능력 있다-무능하다	.691	유능함 (competence)
		똑똑하다-멍하다	.659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632	
		합리적이다-불합리하다	.560	
요인6	.639	성적으로 개방적이다-성적으로 보수적이다	.697	개방성 (openness)
		적극적이다-소극적이다	.684	
		진보적이다-보수적이다	.677	
		외향적이다-내성적이다	.620	
+1 ^a		성적으로 만족-성적으로 불만족	.530	성적만족도를 추가로 측정하였음

주. a는 추가적 요인으로서 적용 대상에 따라 다른 필요 요인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음

1993). 이에 애정관계에서 '연인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상대'를 판단대상으로 할 경우, 표상되어지게 되는 다양한 요인들과 판단의 차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s)에 의한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고유치(eigen value)와 스크리 플롯(scree plot)에 근거하여, 6개의 요인을 설정하였다. 각 요인별로 가중치가 높은 상위 4개의 쌍을 골라서 24개의 단어쌍으로 된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척도: Me(My partner) As a Love Partner Scale"를 만들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기본적인 6요인 외에 연애크플이나 부부의 상담의 경우, 서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1의 요인을 더하여 25쌍으로 결정하게 하고, 우선 '성적 만족과 불만족' 항목을 더하기로 하였다(표 1 참조). '+1 항목'은 상담 현장에서 이 척도가 사용될 경우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서 상담자가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다른 항목(경제력, 외모, 종교 등)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다.

MALPS의 양호도 검사

검사-재검사 신뢰도 측정

측정 방법

Y대학교의 교양심리학 과목을 듣는 124명(남자 65명, 여자 58명, 1명 미기재)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20.6세(18세에서 27세)였으며, 29%가 현재의 애인, 34.6%가 과거의 애인과 관련하여 응답하였고 33.6%는 애인이 없었다.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MALPS)'를 3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표 2).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척도, 개인변수 자료, 자기 애인에 대한 척도, 제3의 설문(사랑을 의미하는 단어 고르기) 그리고 '바람직한 연애 대상(이성)은 어떤 사람인가'의 MALPS 순으로 제시되었다. 평가 대상에 따라서 단어의 어순과 방향을 달리하였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대상에 대한 척도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척도의 13번째(이질감-동질감)에서 25번째(성적으로 보수적-개방적)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방향을 바뀌서 먼저 제시되었다.

측정 결과

자기 자신이 대상일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 결과(r)는 제 1요인인 다정함은 .76, 2요인인 유사성은 .47, 3요인인 집중성은 .68, 4요인인 포용성은 .78, 5요인인 유능함은 .63, 6요인인 개방성은 .76이었다. 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각각 .79, .76, .81, .67, .80, .74였으며, 바람직한 대상에 대한 검사에서는 다른 대상들보다 낮게 나왔다(표 3). 자신을 대상으로 한 척도의 신뢰도에서 제2요인의 수치가 다소 낮게 나왔는데, 이는 '유사성 요인'이 연애상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애인과 비슷하다, 수준이 맞다, 동질적이다'등의 관계적 개념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애인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져서,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유사성 요인이 애인간의 비교에서 유용한 요인이라는 것은 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의 결과($r = .76, p < .0001$)를 통해 입증된다고 수 있다(33%에 해당하는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의 애인이 어떤 사람일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근거로 평가하게 하였다).

'바람직한 대상'에 대한 검사의 전반적인 결과는 다른 대상들보다 낮았다. 이는 척도의 신

표 2.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 (MALPS)

연인으로서 나(내 애인)는?		
-뻘뻘하다	1-2-3-4-5-6-7-8-9	-로맨틱하다
-상대(나)와 다르다	1-2-3-4-5-6-7-8-9	-상대(나)와 비슷하다
-판 데 신경 쓴다	1-2-3-4-5-6-7-8-9	-열중하다
-꽂하다	1-2-3-4-5-6-7-8-9	-너그럽다
-무능하다	1-2-3-4-5-6-7-8-9	-능력 있다
-내성적이다	1-2-3-4-5-6-7-8-9	-외향적이다
-다정하다	1-2-3-4-5-6-7-8-9	-냉정하다*
-수준이 맞다*	1-2-3-4-5-6-7-8-9	-수준이 맞지 않다*
-진지하다	1-2-3-4-5-6-7-8-9	-진지하지 않다 *
-포용적이다	1-2-3-4-5-6-7-8-9	-비판적이다*
-독립적이다	1-2-3-4-5-6-7-8-9	-의존적이다*
-진보적이다	1-2-3-4-5-6-7-8-9	-보수적이다*
-성격이 모나다	1-2-3-4-5-6-7-8-9	-성격이 원만하다
-이질감	1-2-3-4-5-6-7-8-9	-동질감
-현신적이지 않다	1-2-3-4-5-6-7-8-9	-현신적이다
-이해심이 부족하다	1-2-3-4-5-6-7-8-9	-이해심 많다
-멍하다	1-2-3-4-5-6-7-8-9	-똑똑하다
-성적으로 보수적이다	1-2-3-4-5-6-7-8-9	-성적으로 개방적이다
-자상하다	1-2-3-4-5-6-7-8-9	-무뚝뚝하다*
-만족하다	1-2-3-4-5-6-7-8-9	-불만족하다*
-성실하다	1-2-3-4-5-6-7-8-9	-불성실하다*
-자유를 존중하다	1-2-3-4-5-6-7-8-9	-소유지배적이다 *
-합리적이다	1-2-3-4-5-6-7-8-9	-불합리하다*
-적극적이다	1-2-3-4-5-6-7-8-9	-소극적이다*
+성적으로 불만족 한다	1-2-3-4-5-6-7-8-9	+성적으로 만족 한다

주. *는 역채점 문항, +로 표시된 항목들은 실시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회도의 문제라기보다, '바람직한 대상'에 대한 판단이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가변적인 성격의 판단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의적 척도가 추구하는 .70의 기준에 거의 부합하거나 충분히 달성하였으므로(Gable & Wolf, 1993), MALPS의 척도로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MALPS의 검사 실행

자신에 대한 MALPS의 실시

Y 대학교의 학생 658명과 부천과 강남의 영어 학원 수강생 257명을 총 941명(남성 495명,

표 3. 대상/요인별 검사-재검사 신뢰도(*r*)

Correlations	자신에 대한 평가	애인에 대한 평가	바람직한 대상
F1 다정함	0.78**	0.79**	0.67**
F2 유사성	0.47**	0.76**	0.54**
F3 집중성	0.68**	0.81**	0.60**
F4 허용성	0.78**	0.80**	0.66**
F5 유능함	0.63**	0.67**	0.58**
F6 개방성	0.76**	0.74**	0.66**

** $p < 0.01$ level.

여성 446명, 평균 21.7세)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에 대한 MALPS를 완성하게 하였다. 성별에 의한 MALPS의 각 요인의 점수차는 집중성의 요인을 제외하고는, $F(1, 935) = 4.78, p < .03$,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 반면 연애 상태에 따라 장기 애인 없음(347명), 단기 애인 없음(180명), 단기 애인 있음(101명), 장기 애인 있음(313명)으로 나누어 본 결과, 연애 상태는 MALPS 상의 자기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연애 상태에 따라서 다정함, $F(3, 940) = 16.38, p < .0001$, 유사성, $F(3, 937) = 14.22, p < .0001$, 집중성, $F(3, 938) = 16.68, p < .0001$, 허용성, $F(3, 935) = 3.42, p < .02$, 유능함, $F(3, 939) = 7.18, p < .0001$, 그리고 개방성에서, $F(3, 939) = 19.63, p < .0001$, 자기 평가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성별과 연애 상태에 따른 상호작용을 이원분산분석(factorial ANOVA)으로 알아본 결과, MALPS의 어떤 요인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애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애인이 없는 사람들보다 자신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했으며, 장기 연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 평가가 가장 높았다. 전체 중에서 단기적으로 애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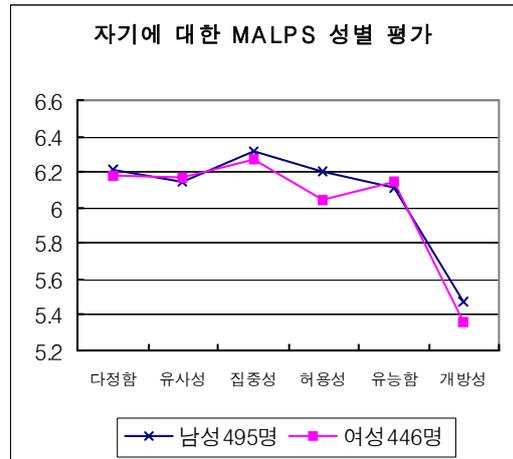


그림 1. 자기에 대한 MALPS의 성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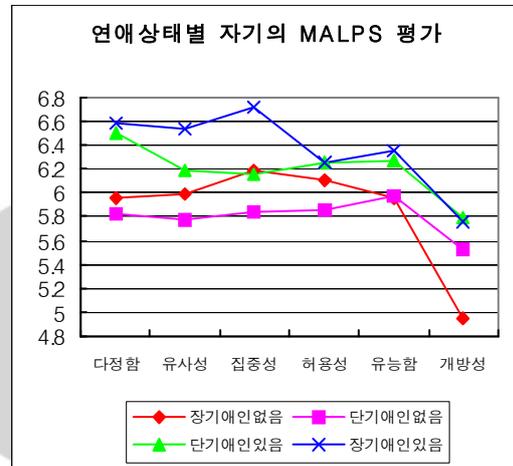


그림 2. 연애상태별 자기의 MALPS 평가

없는 사람(애인과 헤어진 지 6개월 이내인 사람)의 자기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았다. 장기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개방성 요인에서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며, 진보적이고 성적으로 개방적인 태도가 약한 것은 연애상태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의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와 애인, 친구에 대한 MALPS의 평가

자기에 대한 MALPS 평가를 한 941명 중 연애 경험이 있는 414명 중에서 최근 연애 경험이 있었던 193명(연애 중 122명, 최근 헤어짐 71명)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 애인에 대해서 MALPS를 실시하였다. 남성이 99명, 여성 94명이었으며, 평균 22.1세였고, Y 대학교 재학생 83명과 부천 및 강남의 영어학원의 수강생들 110명이 대상이었다. 나머지 인원은 절차상의 문제로 자신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애인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해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현재 연애중인 58명은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서도 MALPS를 완성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보다 친구나 애인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연애관계에 있는 사람들(122명)은 자신의 애인을 개방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다정함, $t(122)=4.16, p<.0001$, 유사성, $t(121)=3.24, p<.002$, 집중성, $t(122)=2.71, p<.01$, 허용성, $t(122)=2.61, p<.01$, 유능함, $t(122)=3.54, p<.001$)에서 높게 평가하였다. 친구에 대해서는 유사성, $t(58)=2.14, p<.04$, 허용성, $t(58)=4.30, p<.0001$, 유능함에서, $t(58)=3.44, p<.001$, 자신보다 더 높게 평가했는데,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양상은 애인에 대한 평가와 달랐다. 애인과 헤어진 사람들은 자기 평가도 낮지만, 이전 애인에 대한 평가도 낮았다. 특히 제2요인인 유사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여, 이전의 애인과 자신을 각기 다른 존재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MALPS는 연애 당사자들 간의 직접 비교를 전제로 애정관계에서의 자신과 대상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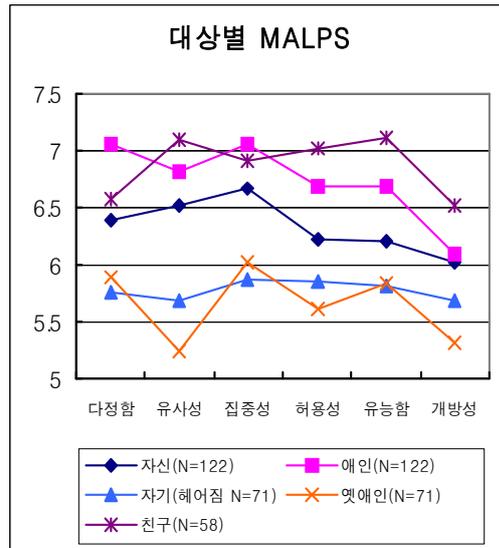


그림 3. 판단 대상별 MALPS 평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인간의 매력에 관심을 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조사함(Berscheid & Walster, 1969)”에도 연애태도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과 애인에 대해 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과 개방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연애 태도 또는 애인을 평가하는 요인들이 어떤 개인적 변인들과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다른 성격적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태도의 유사성이 관계만족과 호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홍대식, 2002; Aronson, 1999; Berg & McQuinn, 1986; Byrne et al., 1986; Byrne, 1963; Condon & Crano, 1988; Jones et al., 2003; Pines, 1999; Surra & Longstreth, 1990), 연애 태도에 대한 이해는 애정관계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여과과정을 통해

연애상대의 범위가 이미 좁혀져서 비슷한 수준의 대상들 중에서 연애 상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연애태도가 양성 모두에게서 관계 유지와 만족의 중요 변수가 된다. 연애 상대가 우호적이고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양성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며(Buss & Barnes, 1986), 그런 태도는 이성 관계에서 장점이 된다. 진화심리학과 인류학이 배우자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강조하는 '자원의 소유' 여부만큼, 자원을 제공 방식에 해당하는 '관계에서의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이성 선택과 관계 만족의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구성이론의 주장처럼 남녀가 이성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에서 같은 점이 있다면(Pines, 1999), 연애 태도에서도 서로 달라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 연구에서는 연애태도에서의 성차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연애 상태는 연인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랑이라는 경험은 '자기' 개념과 많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강렬한 것이다(Stapel & Tesser, 2001; Baumeister, 1998). 이런 자기에 대한 이해는 파트너의 선택, 관계의 지속과 만족 등, 연애의 많은 양상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Snyder, 1974; Newcomb, Huba & Bentler, 1986; Walker, 1997).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기분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의 확대의 결과로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의 고양어 일어난다고 한다(Aron, Aron & Paris, 1995). 연애 관계가 모두 깊은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MALPS의 자기 평가 점수가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 높았던 이유를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의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연애 중인 사람들은 분명 자기 자신을 연인으로서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애 상태에 있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증가시키고 자신을 보다 바람직한 존재로 보게 만들기 때문인지(Campbell, Sedikides, & Bosson, 1994), 반대로 연인으로서의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연애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인지의 인과성은 아직 좀 더 알아봐야 문제이다.

연애 중인 사람은 자신보다 MALPS의 6요인인 개방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에서 애인을 높게 평가했다. 1요인인 다정함을 제외하면 다른 요인들에서 점수 차는 나지만 자신과 애인의 평가는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준다.

MALPS를 친구에 대해서 실시한 것은 이 척도가 연인으로서의 자신과 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 평가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럴 필요성 제기한 검토자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연애 중인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서도 자신보다 더 높은 평가를 했지만, 애인에 대한 평가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람들은 애인보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더 가깝다고 평가했으며, 친구를 자신들보다 더 유능하고 포용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LPS의 각 요인의 대상별 분포에서의 차이는 이 척도가 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분별력 있는 척도임을 입증한다.

제작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로서 9점 척도의 숫자로 인해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이 나타났을 수 있다(김아영, 2004). 편향을 줄이기 위해 역채점 항목을 분배 하였는데(25쌍 중 12쌍), 대상별로 단어의 제시 순서를 바꾸어서 학습의 효과를 감

소시키고자 한 것이다.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제시됨에 따라서 MALPS는 학습의 효과가 더 적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Osgood 등 (1958)의 경우에는 일방향이나 양방향 채점방식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지만, +5점과 -5점 사이의 11점 척도의 사용이 보다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어 수집에서는 기존의 믿음만한 연구들의 결과물을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요인들이 골고루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용사들을 선별하여 수를 줄이는 준비 단계와 예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가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연애 경험이 적은 대학교 1, 2학년생들이 주요 대상이어서, 연애관계의 다양한 국면에서 보다 중요한 요인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애 경험이 많은 대상과 나이가 더 많은 집단이나 기혼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애관계에서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개념들을 설정하게 하는 작업, 64개의 단어 풀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평가를 통해 요인을 추출하는 작업이 계속 되어져서 다양한 요인이 척도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MALPS를 연인들 또는 기혼인 사람들에게 쌍별로 직접 실시하게 되면, 6개의 요인과 +1 요인에 대한 직접 비교를 통해서 형평성(자신과 상대방 간)과, 상호의존이론의 비교수준(현재 애인과 대안적 상대) 중에서 어떤 것이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MALPS는 이성 관계 상담에서 유용한 사전 검사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MALPS에 다른 요인을 추가해서 검사하거나, 관계만족도를 함께 검사함으로써 애정관계의 양상과 당사자의 태도에 대한 파악을 보다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척도 사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연애상대에 대해서보다 현재의 관계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연애태도와 관계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이해는 보다 나은 선택과 보다 바람직한 연애관계의 형성에 기여한다(Fromm, 1956). 잘못된 믿음과 왜곡된 판단에 근거한 사고의 결과가 관계의 부정적인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주 흔하다(김중술, 1994; De Angelis, 1992; Forward & Torres, 1987; Norwood, 1996). 아직 사랑에 대해서 '머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접근은 단지 연애 대상의 조건과 능력만을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마음'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하지만, 이런 정서적 접근은 순수하게 들릴지라도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De Angelis, 1992; Robin, 1996). 사랑을 생각하고 배워가야 하는 것 대신 그저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 그저 결혼을 위한 과정으로 대하는 식의 접근은 사랑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과 신화를 만들고, 이해와 공감의 노력을 막고 결국 건강 한 애정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

사랑에 대한 자신과 상대방의 태도의 이해는 우리가 더 잘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도우며, 더 많이 사랑하는 관계의 형성을 돕는다(김중술, 1994; Fromm, 1956). 대중 잡지 속의 별자리나 혈액형에 의한 애정 유형 맞추기 대신, 타당성과 신뢰도가 갖춰진 활용하기 쉬운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 심리학이 현실 속의 사람들의 삶에 더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척도가 연애관계에서 자신과 애인에 대한 판단의 방향과 이해를 제시하는 데에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아영 (2004). 심리검사 개발 절차: 정의적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제1차 방법론 Workshop자료집 .
- 김정옥, 권석만, 정남운 (2000).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의 개발: 요인구조 및 심리측정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53-175.
- 김중술 (1994). 新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07-123.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4).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정서단어의 유사성구조와 정서 체험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50-175.
- 유의숙, 박경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93-812.
- 정남운 (2001).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심리과학, 10(1), 117-132.
- 정남운 (2004).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37-51.
- 한덕웅 (1992). 성격특성 용어의 사용 빈도, 호오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 한국심리학회지, 11(1), 147-171.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63-99.
- 함인희 (2001). 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친밀성의 혁명? 가족과 문화, 13(2), 3-28.
- 홍대식 (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81-110.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홍대식 (2002). 연애와 결혼의 심리학. 박영사.
- Beck, A. T. (1988). *Love is Never Enough*. New York: Harper Perennial.
- Berscheid, E., & Walster, E. H. (1969). *Interpersonal Attraction*.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
- Burns, G. L., & Farina, A. (1987).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elf-perception of mental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61-163.
- Buss, D. M., & Barnes, M. (1986).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9-570.
- Buss, D. M. (1994). *The Evolution of Desire*. New York: Basic Books.
- Byrne, D., Clore, G. L., & Smeaton, G. (1986). The attraction hypothesis: Do similar attitude affect anyt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67-1170.
- Byrne, D., & Murnen, S. K. (1988). Maintaining loving relationships. In Sternberg, R. J. & Barnes, M. L.(Eds.), *The Psychology of Love* (pp. 293-31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Campbell, K. E., Kleim, D. M., & Olson, K. R. (1986). Gender, physical attractiveness, and assertivenes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6, 697-698.

- Condon, J. W., & Crano, W. D. (1988). Inferred evalua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attitude similarity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89-797.
- De Angelis, B. (1992). *Are You The One For Me?* New York: Dell Publishing.
- Diamond, J. (1997) *Why is Sex Fun? The Evolution of Human Sexuality*. Orion Publishing Inc.. 섹스의 진화 (임지원 역, 2005). 사이언스 북스.
- Dion, K. L., & Dion, K. K. (1973). Correlates of romantic lo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51-56.
- Dion, K. L., & Dion, K. K. (1987). Belief in a just world and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75-780.
- Edwards, A. L. (1957) *Techniques of Attitude Scale Construc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 Feenl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81-291.
- Feingold, A. (1992). Gender difference in mate selecting preferences: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 125-139.
- Feingold, A. (1990). Gender difference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 Feingold, A. (1988). Matching for attractiveness in romantic partners and same-sex friends: A meta analysis and theoretical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4, 226-235.
- Fisher, H. E. (1994). *Anatomy of Lov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Fisher, H. E. (1999). *The First Sex*. 제1의 성 (정명진 역, 2003). 생각의 나무.
- Fisher, H. E. (2004). *Why We Lov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LLC.
- Forward, S., & Torres, J. (1987). *Men Who Hate Woman & The Woman Who Love Them*. New York: Bantam Books.
- Fromm, E. (1956). *The Art of Lov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Gable, R. K., & Wolf, M. B. (1998).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 (2nd. Ed.).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Gilbert, D. T., Jones, E. E., & Pelham, B. W. (1987). Influence and inference: What the active perceiver overloo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61-870.
- Greitemeyer, T. (2005). Receptivity to sexual offers as a function of sex, socioeconomic statu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intimacy of the offer. *Personal Relationships*, 12, 373-38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Shaver, P.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Hendrick, C., Hendrick, S., Foote, F. H., & Slapion-Foote, M. J. (1984). Do men and

- women love differentl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177-195.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297-307.
- Hill, C. A., & Preston, L. K.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sexual motivation: Theory and measurement of dispositional sex motiv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3, 27-45.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al perspectiv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 87-100.
- Jones, T. J., Pelham, B. W., Carvallo, M., & Mirenberg, M. C. (2004). How do I love thee? Let me count Js: Implicit egotism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665-683.
- Kalick, S. M. (1987). Physical attractiveness as a status cu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469-489.
- Kimura, D. (2000). *Sex and Cognition*. MASS Cambridge: The MIT Press.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Kurdek, L. A. (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A 5 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21-242.
- Langlois, J. H., Roggman, L. A., & Musselman, L. (1994). What is average and what is not average about attractive faces? *Psychological Science*, 5, 214-220.
- Lee, J. A. (1988). Love-styles. In Sternberg, R. J. & Barnes, M. L.(Eds.), *The Psychology of Love* (pp. 38-67).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Lykken, D. T., & Tellegan, A. (1993). Is human mating adventitious or the result of lawful choice? A twin study of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56-68.
- Mathes, E. W., & Kahn, A. (1975). Physical attractiveness, happiness, neuroticism,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Psychology*, 90, 27-30.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21-331.
- Monahan, J. L., Murphy, S. T., & Zajonc, R. B. (2000). Subliminal mere exposure: Specific, general, and diffuse effects. *Psychological Science*, 11, 462-466.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8).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rentice, D. A., & Miller, D. T. (1992). When small effects are impressive. *Psychological Bulletin*, 112, 160-164.
- Pines, A. M. (1998). A prospective study of person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romantic attraction.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25, 147-157.
- Pines, A. M. (1999). *Falling in love*. New York: Routledge.
- Pronin, E., Kruger, J., Savitsky, K., & Ross, L.

- (2001). You don't know me, but I know you: The illusion of asymmetric ins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639-656.
- Reinisch, J. M. & Beasley, R. (1990). *The Kinsey institute new report on sex: What you must know to be sexually literate*. 최신 킨제이 리포트 (이영식 역, 1992). 하서.
- Robin N. (1996). *Women Who Love Too Much*.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이미영 역, 1996). 한마음사.
- Rust, J. & Golombok, S. (1999). *Modern Psychometrics: The science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nd Ed.). 현대심리측정학 (김아영, 조영미 공역, 2005). 박학사.
- Schachner, D. A., & Shaver, P. R. (2004). Attachment dimensions and sexual motives. *Personal Relationships*, 11, 179-195.
- Sedikides, C., Oliver, M. B., & Campbell, W. K. (1994).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of romantic relationships for women and men: Implications for exchange theory. *Personal Relationships*, 1, 5-21.
- Simpson, J. A. (1987). The dissolution of romantic relationships: factors involved in relationship stability and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83-692
- Snell, Jr., W. E., & Papini, D. R. (1989). The sexuality scale: An instrument to measure sexual-esteem, sexual- depression, and sexual-preoccupatio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6, 256-263.
- Sternberg, R. J. (1987). Liking versus loving: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ories. *Psychological Bulletin*, 102, 331-345.
- Sternberg, R. J. (1998). *Love is a 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 Barnes, M. L. (1988).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urra, C. A., & Longstreth, M. (1990). Similarity of outcomes,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01-516.
- Townsend, J. (1998). *What Women Want - What Men Wa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zeng, O. C. S. (1993). *Measurement of Love and Intimate Relations: Theories, Scales, and Applications for Lov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Dissolution*. CT: Praeger Publishers.
- Umberson, D., & Hughes, M. (1987). The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27-236.
- Waller, N. G., & Shaver, P. R. (1994). The importance of nongenetic influences on romantic love styles: A twin-family study. *Psychological Science*, 5, 268-274.
- 1 차원고접수: 2006. 2. 12.
심사통과접수: 2006. 3. 12.
최종원고접수: 2006. 3. 17.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Me(My Partner) As a Love Partner Scale”

Hyun-Duk Joo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to measure people's attitudes in love relationships, “Me(My Partner) As a Love Partner Scale” and examine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Though many scales have been constructed to evaluate elements related to love relationships and attitudes towards love partners, no scales which measure ‘what kind of lover I am’ directly in love relationships have been made. Thus, this study aimed for a construction of a scale which measures “me(my partner) as a love partner” and a development of MALPS with the method of Semantic Differentials by Osgood et al.(1958). First, from the pool of personality adjectives($N=1780$) in Korean language, 106 items were selected, which made the new adjective pool. In the preliminary study, non-personality adjectives, such as demographic, sex and mating related factors, were added to the pool then reduced, and elements that have been studied in the previous studies which developed love-related scales and specialized in love. The new pool of 140 items for attitudes in love relationships was made and administered to 306 subjects, and then 64 items were selected. In the main study, an ‘attitude as a lover scale’ was administered to 376 subjects, then 6 distinctive factors were identified through factor analysis by principal components method with varimax rotations. The factors were tenderness, familiarity, commitment, competence, permissiveness, and openness, which explain 61% of the total variance. The top 4 pairs of adjectives were selected from each factor, which consist of 24 pairs of adjective scale of MALPS, and as a +1 factor, “satisfied sexually-not satisfied sexually” was added. The range of internal consistency was from .64 to .80. And the correlations of MALPS and its subscales ranged from .48 to .77, and the intercorrelations among factors ranged from .06 to .48. Then a three-week interval test-retest reliability of .81 to .67 was acquired from 107 subjects, indicating that its psychometric properties are at least as good as other widely used scales.

key words : measurement of love relationship, love partner, love attitude scale, semantic differential